삼성토탈, 장애인과 타조놀이 “여유만만”

삼성토탈은 5월29일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작구 삼성농아원 소속 장애우 50명을 초청해 타조농장 나들이 행사를 열었다고 5월30일 발표했다.

삼성토탈 직원들과 장애우들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타조농장에서 모이주기, 사진찍기, 타조알 껍질로 공예품 만들기, 타조알 볼링 등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삼성토탈 관계자는 “참가자들도 즐길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화학저널 2005/05/31>